

국내 유일 마르형 '하논분화구' 보전 본격

도, 2033년까지 198억 투입 사유지 21ha 순차 매입 전액 지방비로 충당... 예산 확보가 매입 계획 관건 "훼손 예방과 함께 담방로 개선해 생태공간 탈바꿈"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유일의 마르(Maar)형 분화구인 서귀포시 '하논분화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총 198억원을 투입해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내 사유지 527필지(21ha)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수립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전체 핵심구역 23ha(531필지) 중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527필지(21ha)를 사들여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2028년까지 59억원을 투입해 4.5ha를 매입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매입 공고를 통해 접수된 89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잔여 필지는 2033년까지 연차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논분화구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흥동에 걸쳐 있는 마르형 분화구로 3만~7만6000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성 이후 오늘날까지 5만년간 기후와 지질, 식생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과거 하논분화구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습지로의 '완전 복원'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농사가 진행 중이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등 습지 원형이 일부 변형됨에 따라 제주도는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사유지 매입을 통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동시에, 분화구 내 물길을 따라 담방로를 개선하고 예곡유지(

Eco-museum) 등을 조성해 도민과 관광객이 생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다. 현재 하논분화구 매입비는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예산으로 30억원 규모를 검토했으나, 20억원 확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정 제주도 꽃자왈생태관광팀장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매입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203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하논분화구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직원 근속연수 조사 남 9년5개월 vs 여 8년... 최대 6년 격차

제주지역 공공기관들의 남녀 근속연수가 최대 6년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6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임금 공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평등 임금 공시는 지난해 추진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근속 연수를 조사했다.

공시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 근거해 도 산하 17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으로 이 중 4인 이하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됐다.

공시에 따르면 17개 도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 연수는 9년 5개월로 여성 평균인 8년보다 1년 5개월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평균 근속이 가장 긴 기관은 12년 4개월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여성 평균 근속인 6년 4개월에 비해 6년 더 길어 남녀 평균 근속 차이가 가장 컸다.

13년 1개월로 여성의 평균 근속이 가장 긴 서귀포의원은 남녀 평균 근속도 가장 길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남녀 각각 4년 4개월, 4년 3개월로 평균 근속 차이가 가장 적었으며 제주사회서비스원(본원)은 남녀 각각 1년 6개월, 2년 5개월로 가장 짧은 평균 근속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 보수, 승진 과정에서 누적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승진 과정에서 남성이 위로 올라가고 임금이 낮은 부문에는 여성이 많이 분포되는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 관광극장 활용방안" 각계각층 의견 적극 반영" 11일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서귀포시가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정방동주민센터에서 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안전성의 문제로 긴급하게 일부 석축 벽체가 철거된 이후 현재 일반 대중의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 서귀포 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대안 발굴 절차 등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전반적인 설명이 이뤄지는 자리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 건축물 안전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전제로 철거를 비롯해 보수·보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 협의회 의견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예술단체, 주변 상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추진협의회 논의,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활용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봄날씨에 즐기는 파크골프 5일 제주도 종합경기장 인근 파크골프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봄날씨 속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3월 중 초안 공개... 도민 소통창구 개설"

제2공항 정보 공개 자문단

제2공항에 대한 각종 정보와 주요 쟁점들이 담긴 제주 제2공항 정보 공개 종합자료집 초안이 3월 중 도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

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수정 방안을 바탕으로 보완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 초안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자문위원들은 종합자료집이 정보공개에 원칙에 맞게 적절히

보완됐는지 확인했으며 자료집 초안에 대한 도민 공유 및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했다. 또한 도민 의견 제시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개설과 구체적인 의견 수렴 일정 등을 확정했다.

자문단은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중 자료집 초안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상반기 중 종합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10곳 신규 조성

제주시가 매일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10곳을 신규 조성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0곳(한림읍 2, 애월읍 2, 구좌읍 1, 한경면 2, 연동·노형·오라동 각 1)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상반기 6곳, 하반기 4곳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클린하우스 운영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이후 반경 500m 내 위치한 클린하우스를 철거해 분리배출 환

경을 개선, 재활용품 회수를 증진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10곳을 신규 조성한다.

클린하우스 철거로 도로변과 주거지역 내 적치 공간이 정비되면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악취와 해충 발생이 감소하는 등 주민 생활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 정비와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 경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무단투기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시는 재활용도움센터 115곳을 운영 중이다. 백금탁기자

도민대학 명예석사 첫 배출

제주도민대학 출범 이래 첫 명예석사가 배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비인(BEIN) 공연장에서 '제주도민대학 제2회 명예석사 수여식 및 2026년 개강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도민대학에서 300시간 이상을 이수한 도민 5명이 처음으로

로 명예석사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 도민대학에서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70명이 명예석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석사는 전년 대비 19% 늘었다.

명예석사 학위를 받는 강경일(67)씨는 "도민대학 덕분에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